



■ 라틴아메리카에서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

이 성 훈

2008년 발간된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Journal of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17권 1호에 논쟁적이고 주목할 만한 두 편의 글이 실렸다. 존 베벌리(John Beverley)와 마리오 로베르토 모랄레스(Mario Roberto Morales) 사이에 벌어진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들의 정체성과 재현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그것이다. 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과 입장 차이는 로베르토 모랄레스가 존 베벌리를 지도교수로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썼다는 사적인 인연 외에도 현재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특정 사안에 대한 쟁점을 넘어서, 라틴아메리카 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묻는, 보다 본질적인 물음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미국 내 라틴아메리카 문학 및 문화연구의 대가로 평가받는 존 베벌리와 1970년대 과테말라의 유명한 좌파 게릴라 출신으로, 이후 게릴라 활동을 접고 작가, 저널리스트, 문학 이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로베르토 모랄레스의 대립적

인 입장을 따라 원주민 정체성 논란을 살펴 보자.

주지하다시피, 존 베벌리는 하위주체의 경험과 목소리를 드러내는 증언서사에 주목하는 하위주체 연구그룹에 속한다. 하위주체 연구 들을 통해 침묵당한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이야 말로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위주체와 증언서사에 대한 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과테말라 현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이론적 틀을 통해 과테말라 현실을 이해하고 이른바 ‘연대’를 통해 과테말라 현실에 개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테말라에 대한 관심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전직 게릴라였던 로베르토 모랄레스의 박사논문 지도교수라는 점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렇듯 사적인 관계와 지적 경향성을 고려할 때, 이들 사이의 감정적인 논쟁과 불화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존 베벌리

시작은 이 논쟁이 실린 2008년이 아니라, 훨씬 전인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베르토 모랄레스에 따르면, 1998년 박사학위 최종발표를 앞둔 한 달쯤 전으로 이때부터 그와 존 베벌리는 입장을 달리하게 된다. 로베르토 모랄레스는 이 과정에 케이 워런(Kay Warren)을 비롯한 과테말라 원주민 운동과 관련된 미국 학자들, 원주민 운동가와 정치인 그룹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즉 이들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인 관점을 과테말라 좌파 운동에 대한 배신으로 해석하는 특정 그룹들의 정치적인 움직임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다.

하위주체에 주목하는 존 베벌리와 달리 로베르토 모랄레스는 기본적으로 범(凡)마야 민족주의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를 미국



마리오 로베르토 모랄레스

다문화주의의 기계적 이전의 결과물로 간주한다. 다문화주의가 갖는 종족 (ethnic) 본질주의와 근본주의는 과테말라의 상호문화성을 민주화하는 데에도, 더 나아가 과테말라의 종족 간 혼종성이라는 복합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상호문화적인 ‘종족 간 협상’(negociación interétnica)을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곧 과테말라뿐

만 아니라 미국 내 일부 진보진영의 비판을 야기했는데, “원주민이 아닌 라디노(ladino)를 위한 이론이며, 원주민의 권리를 훼손하면서 메스티소 혹은 라디노 정체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인종주의적인 것이고, 과두세력과 전통적인 지배세력을 위한 이론화라는 혐의를 받게 된다. 존 베벌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의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론가들 역시 그의 견해를 비판하는 데, 로베르토 모랄레스는 이를 ‘종족 간 협상’이라는 가정이 원주민과 메스티소라는 이분법적인 대립에 기초한 그들의 이론 틀과 학문 네트워크를 잠식하는 데서 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간주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증언 서사에 대한 대립되는 평가에서 시작한다. 로베르토 모랄레스는 리고베르타 멘추와 그의 증언이 베벌리와 같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학자들에 의해 ‘하위주체나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전화되고 권력화되었다고 비판한다. 또한 멘추의 학문적 정전화가 과테말라 내에서 범마야 문화 민족주의와 정체성 정치 담론의 정당화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멘추의 증언서사가 범마야 문화 민족주의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언서사 장르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하위주체성이 아닌

메스티사헤(mestizaje) 개념을 중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위주체성에 의거하여 범마야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베벌리에 맞서 모랄레스는 하위주체 연구가 원주민 정체성을 본질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마야 정체성 정치’ 노선은 과테말라 사회의 진정한 다문화적 민주화보다는, 원주민 엘리트, 지방 정부, 글로벌 시스템사이의 거래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원주민/라디노, 지배/하위주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 대신에 상호문화적 메스티사헤가 과테말라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적절하고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베벌리가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문화비평의 신보수주의적인 전환」이라는 글에서 로베르토 모랄레스의 입장을 신보수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시대사적 맥락과 결부되어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에 의해 손상되고 저평가된 인문학 영역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나 이데올로기 국가기구가 신자유주의에 의해 유발된 정당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보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중상위 계층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본질적으로 백인, 크리오요, 라디노 지식인들”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시장과 대중문화의 영향력, 그리고 정체성 정치에 기반한 사회운동이나 정치적 움직임으로부터 자신들의 문화적이고 해석학적인 권위를 재획득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 베벌리의 비판에 대한 모랄레스의 입장은 앞에서 대략 설명한 것처럼, 베벌리가 미국의 ‘강단 좌파’의 틀에 갇혀 라틴아메리카를 “이상적으로” 전유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랄레스는 존 베벌리가 미국 내 쇠락해 가는 문화주의 좌파 입장을 가지고, 본질주의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신보수주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원주민과 라디노 사이의 ‘차이’를

무화시키고 있다는 베벌리의 지적에 대해 단지 대립적인 이분법을 지양하고 있을 뿐, 차이에 기반한 새로운 생성의 가능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라고 답한다.

또 다른 비판, 즉 증언서사에 대한 비판을 들어 로베르토 모랄레스가 “지식인, 백인, 헤게모니적, 근대-자본주의적” 심지어, 반혁명적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멘추의 증언서사가 갖는 구체적 한계 이외에도 베벌리의 하위주체 이론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인도에 기반한 이론이 라틴아메리카에도 유효한지, 영국과 인도의 사례가 과연 라틴아메리카의 메스티소와 인디오 사이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그리고 베벌리의 이러한 입장을 자신의 학문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더 나아가 자신이 과테말라민족혁명연합(URNG: Unidad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을 비판하고 우파로 전향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는 과테말라 좌파에 대한 비판이지 좌파 일반에 대한 비판이 아니며, 자신은 여전히 좌파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는 베벌리를 문화주의자라고 비판한다. 즉 하위주체의 권리에 대해 이론화할 때, 경제에 대해 문화를 특권화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베벌리가 “자신의 경력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문화적으로 이상화된 민중 개념과 무비판적인 연대가 아니라, 먼저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두 번째는 문화적 요구를 중심으로 정치적 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민중들 사이에서



과테말라 원주민 리고베르타 멘추의 증언서사, 『내 이름은 리고베르타 멘추...』의 표지

투쟁함으로써 민중에게 봉사한다”고 말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결국, 로베르토 모랄레스는 자신에 대한 베벌리의 비판을 “도덕주의적인 린치”로 간주하고,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출세주의(gringo careerism)와 라틴아메리카 민중 사이에서 자신은 후자를 선택하겠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존 베벌리의 비판을 미국 내 강단 좌파의 출세주의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음 호(17권 2호)에 실린 베벌리의 재반론은 모랄레스의 관점이 “라틴아메리카에 관해서/라틴아메리카에서(writing about/from latin america)”라는 발화위치를 둘러싼 라틴아메리카 연구진영의 해묵은 이분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멘추의 증언서사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우파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기여했다는 것에서 좌파의 대의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이런 전통은 바스콘셀로스, 파스, 바르가스 요사, 보르헤스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성사에서 그리 낯설지 않은 전통이라고 말할 때, 존 베벌리와 로베르토 모랄레스는 이제 더 이상 화해가 불가능해 보인다.

베벌리가 신보수주의적인 전환을 아니발 키하노가 정식화한 ‘권력의 식민성’ 결과로 파악하고, 이것은 “지역적”이라는 주문과 북미 지식인이나 연대활동가들에 대한 희비극적인 환상”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결론처럼 말할 때, 그의 지적은 의미 있다. 그러나 로베르토 모랄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1세계 강단좌파의 입장에서 라틴아메리카를 전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혐의 또한 유효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둘 사이의 논쟁은 단순한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연구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으로 확장된다.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적 정

체성과 재현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불화는 10여 년 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고문헌

John Beverley, "The Neoconservative Turn in Latin American Literary and Cultural Criticism", *Journal of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17:1(2008).

Mario Roberto Morales, "Serving Two Masters, or, Breathing Artificial Life into a Lifeless Debate(a Reply to John Beverley)", *Journal of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17:1(2008).

John Beverley, "Reply to Mario Roberto Morales", *Journal of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17:2(2008).

이성훈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연구원
